

사무엘하 21.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다윗’ (삼하 21 장 1-22 절)

들어가기

본 장은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이 과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다윗’이 알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임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집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 목 매달아 죽인 자들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가나안 땅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 ‘다윗’ 왕국은 끊임없이 쳐들어 오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윗’의 장수들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제압하며 승리하였습니다.

1. 가나안 땅에 내린 3년간의 기근 (1-9 절)

1)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간의 기근은 ‘사울’ 왕이 무죄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1 절)

- ✧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시대는 언제를 말할까?
 - 참고로 21 장부터 24 장까지의 내용은 연대기적인 기록이라기 보다는 ‘다윗’이 통치하던 초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한 부록이라 보아야 함.
 - 학자들은 본 장의 사건을 압살롬의 반란 이전과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은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함. (참고: 열왕기상 18 장 2 절은 다윗 시대에 겨울비가 내리지 않아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음을 기록)
- ✧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민감한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하자.

2) 그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임했을까?

- ✧ 여호수아 9 장을 보면,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화친을 청한 장면이 기록됨.
 -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과 화친을 맺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하며 함께 살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함.
- ✧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을 완전히 몰아내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이며 쫓아냈다는 것!

- 이는 당시 ‘사울’이 그저 자신의 정치적 인기만 생각하여 무고한 기브온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고, 나아가 저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없신 여기는 죄를 범한 것.
- 이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3) 이런 ‘사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3 절)

☆ ‘다윗’은 이스라엘이 겪는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저들에게 속죄하겠다고 자청함!
-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 참고: 야고보서 5 장 4 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 한 신학자 -> ‘가난한 자, 압박 받는 자의 입술은 하나님과 가깝다!’
- 하나님은 결코 억울한 자의 소리, 압박 받는 자들의 눈물을 모른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항상 저들을 대하는 일에 소홀함 없이 주님을 닮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하자!

4) 기브온 사람들은 화해의 조건을 묻는 ‘다윗’에게 자신들을 죽인 ‘사울’의 후손 중 7 명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6 절)

☆ 당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은이나 금을 요구하지 않고 ‘사울’의 후손들에 대한 생명을 요구한 것은 아마도 민수기 35 장 31 절의 율법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 것!

-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

5) 이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중 ‘므비보셋’은 제외시킨 뒤, 7 명을 선택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7-8 절)

☆ 그럼 당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 준 ‘사울’의 후손 7 명은 누구인가?

- ‘사울’과 그의 첩 ‘리스바’ 사이에 태어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
- ‘사울’의 딸 ‘메랍’과 ‘바르실래’ 사이에서 난 사울의 외손자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

- ☆ 참고로 ‘다윗’이 저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주목할 만한 학자들의 견해 한가지.
 - 저들은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것!
 -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신명기 24 장 16 절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함.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모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 ☆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므비보셋’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구원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자!

6)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 명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9 절)

- ☆ 보리 배기를 시작한 첫날 공개적으로 저들을 산 위에서 목매달아 처형함.
- ☆ 그 후 저들의 시체는 곧바로 매장되지 않고 (대략 6 개월동안) 방치되었음.
 - > 이는 매우 잔인한 형벌!
 - 참고로 율법은 나무 위에 달리거나 창으로 찢려 죽임 당하는 형벌을 받은 시체는 그날 저녁에 곧바로 내려서 매장하도록 명령함. (신 21:22-23)

2. 이때 ‘사울’의 첩 ‘리스바’는 저들의 시신을 내려서 비가 내리기까지 밤낮으로 지키며 보살펴 주었습니다. (10-14 절)

- 1) 아마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 ☆ 참고로 학자들은 ‘리스바’가 시신을 보살핀 기간을 대략 6 개월로 추측: (4 월부터 10 월)
- 2)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감동하여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묻어 두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같이 가져와서 저들의 시신과 함께 베냐민 땅 ‘셀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족묘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 3) 성경은 (14 절)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 ☆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 되어 할 모든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비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3. 그 후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장대한 장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그때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저들을 무찌르며 승리하였습니다. (15-22 절)

- 1) ‘아비새’는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브놈’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15-17 절)

- ✧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브뇨’
 - 그는 거인 족의 아들! -> 가나안 본토 르바임 족속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거인들 (창 14:5, 15:20, 민 13:22,28, 신 2:11)
 - 그는 삼백 세겔 (3.6kg)의 낫 창과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고자 함!

✧ 이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저를 대적하여 죽임으로 ‘다윗’의 목숨을 지킴!

2) 이때부터 ‘다윗’의 장수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지 말 것을 청하였습니다.

- ✧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
- ✧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
- ✧ 그러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사라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 처했음을 잊지 말자!

3) 블레셋은 계속해서 거인 장수들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그때마다 ‘다윗’의 장수들에게 힘없이 죽임을 당하며 패전하였습니다. (18-22 절)

✧ 블레셋이 앞세운 거인족의 아들들은 누구였나?

- ①. 거인족의 아들 ‘삽’ - 후사 사람 ‘십브개’가 죽임
- ②.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그의 창의 자루는 베를 채 같음.
 -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임.
- ③. 손가락과 바가락이 각각 여섯 개인 거인족의 아들 -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죽임.

✧ 곧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이 세고 장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군사들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졌다는 사실!

✧ 고린도전서 1 장 27 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일의 전투에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싸우기 보다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